

#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전북도, 취약계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전북도는 스포츠 복지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제공되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저소득층 장애인까지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정 등의 유·청소년이 지정 가맹체육시설 이용 시 인당 최대 월 8만원(6개월 지원)까지 지원하는 스포츠복지 제도로, 올해 장

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대상인 취약계층 유청소년 105명에게 6월부터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 등록 장애청소년 및 성인장애인(만12세~만23세) 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스포츠강좌 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이나 시군 및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보호자를

통해 스포츠 강좌이용권 결제 제휴사인 신한카드로부터 신용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발급받아 거주 지역 태권도·검도·합기도·헬스·수영 등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중 본인이 원하는 시설과 종목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도 운동목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처음 지원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로 대상자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장애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 건강한 여가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창립 10주년 기념식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가 30일 학부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공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달려온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되짚고, 미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선희 교학부총장과 서거석 전 총장, 강문경 학부장을 비롯한 학부 교수와 학생, 동문 등이 참석해 학부 설립 10주년을 축하했다. <관련기사 5면>

## 올해 개별공시지가 8.03% ↑ ... 11년來 최고 상승률

서울 12.35% 상승... 전국 최고  
전북은 5.34%로 비교적 낮아

올해 전국 3353만 개 토지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8.03% 올라, 최근 11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산정해 발표한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은 이 같이 집계됐다.

전년 6.28%에 비해 1.75%포인트 올라, 지난 2008년 10.03% 수준에 근접했다. 국토부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교통망 개선기대, 상권활성화, 인구유입 및 관광수요 증가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은 전년(3310만 필지) 대비 1.3%(약 43만 필지)가 늘었다.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한 산정 대상 필지 증가(국공유지 및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할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서울(-0.7%), 광주(-0.7%), 부산(-0.1%), 대구(-0.1%) 등은 감소한 반면 전남(3.1%), 충남(1.5%), 경남(1.5%), 세종(1.3%) 등은 공시지가 산정 필지수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35%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6.84%)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오름폭이 커졌다.

올해 서울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과 마찬가지로 지난 2008년 이후 11년래 최고치다. 연도별로는 ▲2008년 12.36%▲2009년 -2.14% ▲2010년 3.97% ▲2011년 1.31% ▲2012년 3.69%▲2013년 2.86% ▲2014년 3.35% ▲2015년 4.47% ▲2016년 4.08% ▲2017년 5.26% ▲2018년 6.84% 등이다.

서울 공시지가 상승 요인은 강남권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등의 영향을 받았고, 강북 지역은 성동구에서 추진 중인 연무장길·서울숲 상권활성화 등으로 지가 상승의 오름폭이 커졌다.

시·군·구로 봐도 상위 5개 지역에 서울 자치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서울 중구는 광화문 광장 조성 등의 영향으로 올해 20.49%의 상승률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18.74%), 서울 영등포구(18.20%), 서울 서초구(16.49%), 서울 성동구(15.38%) 등 순이다.

인천(4.63%), 경기(5.73%) 등에서 전년보다 상승폭이 커지며, 수도권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5.37%)보다 3.4%포인트 증가한 8.77%를 기록했다. /뉴시스

반면 5대 광역시는 전년(8.92%) 대비 0.39%포인트 감소한 8.53%, 시·군은 전년(7.20%)보다 1.27%포인트 줄어든 5.93%로 집계됐다.

지방 시·도별로는 서울에 이어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 6곳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는 국제영양도시·제2공항개발, 부산은 주택 정비사업 등이 영향을 미쳤다.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이들 지역은 충남의 경우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최저 변동 시·군·구는 울산 동구(-1.11%)로, 전국 모든 자치구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나타냈다. 선박, 중공업 관련 기업의 불황으로 내수 수요가 급격히 줄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어 전북 군산시(0.15%), 경남 창원시 성산구(0.57%),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 태권도진흥재단, 교육부·대한상공회의소 인증 획득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이 최근 '2019~22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은 지역 사회에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단체를 발굴하고 체험의 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

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재단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태권도 수련·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적 여건 등으로 인해 태권도원을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학교를 태권도 사람들이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자기방어'와 '힐링태권체조'를 지도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태권도를 접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태권도를 소개하고, 건강한 신체 발달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단 인수원 주임은 “태권도원을 찾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내실있는 태권도 수련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며 “이번 태권도 수련·체험 프로그램에 많은 학교가 신청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익산시, 주얼리 임대공장 추가 건립... 일자리 창출 기대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정부 '국내복귀기업 종합지원 대책'에 맞춰 해외진출기업 유치를 위한 임대공장을 작년 이어 2동을 추가로 건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군북예산 14억6500만원 등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해 제3일반산업단지 내 패션단지에 지상3층, 연면적 999㎡ 규모로 공장 2동을 올해 12월까지 신축한다.

익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중국 청도 소재 LK주얼리(대표 김영남), 금정

공예품(대표 김광제)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3월 설계에 착수해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평면계획부터 건물 배치까지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됐다.

오는 6월 중 경관자문, 설계심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 초 입주자가 시작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중국 내 사업 환경 변화 등으로 국내복귀를 검토 중인 기업들이 우리 시로 보다 수월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임대공장 건립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정

부 지원 대책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국내복귀기업 환경 개선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패션단지에는 국내복귀기업 10개사를 포함한 30개사가 입주, 일자리 330개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추진하는 임대공장 건립사업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국내복귀를 망설이는 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해 익산시가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10월 준공된 임대공장은 하이주얼(주)이 입주해 일자리 45개를 창출하였으며 향후 수출 확대를 통한 추가 고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 실시간 정보 공유로 대형재난에 강력 대응

### 전북도 소방본부, 전국 최초 재난현장 사상자관리업 개발 인적사항·병원수용능력 등 정보관리와 공유체계 획기적 개선

전북소방본부(본부장 마재운)는 대형재난 발생 시 사상자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유관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APP, 이하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해 오는 6월부터 활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화재, 지진, 화학물질누출 등 대형재난에는 통신체계가 다른 여러 대응기관이 사상자 구조활동에 참여해 정보공유가 어렵고 특히 현장통합지휘체계가 갖춰지기 전인 재난 초기에는 사상자 인적사항 관리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2018년 8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 10개월 만에 전국 최초로 전문

시스템을 개발·보급하게 되었다.

종래에는 현장활동대원이 무전이나 유무선전화를 이용해 지휘부에 보고하고 각 대원이 보고한 내용을 지휘부가 정리해 유관기관에 전파하는 체계였으며, 음성수신과정에서 오탈자나 중복보고 등 혼선이 가능성이 있었으며 유관기관 정보공유에도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발된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접속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단말기로 사상자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어 음성보고에서 발생하는 오류 발생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입력된 모든 사상자 정보는 성별, 나이, 이름과 부상정도 등 표

준화된 서식으로 자동 정리되고 이를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보건소 등 유관기관에서도 즉시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 해 속원이었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함께 실현했다.

그 외에도 수용 가능한 응급실정보를 단말기를 통해 열람할 수 있어 특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고 출력 및 파일생성, 사상자 중복입력 자동차단 등 정보관리에 필요한 필수 기능을 함께 탑재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119 종합상황실 대원이 직접 개발한 것으로 개발비와 유지보수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 할 때 연간 1억원 이상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1석 2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성 기자

